

종합·해설

# 민주통합 6·9전대 주자 누가 나서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서 민주통합당 내부 분위기는 6·9 전당대회 모드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대표·최고위원 6명) 경선은 친노(친 노무현) 대 비노(비 노무현)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전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고, 오는 12월에 열리는 대선을 총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파 간, 대권주자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7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6·9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 진영에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라는 것이 당내외의 평가다.

그러나 친노 색채가 너무 강하고, 문재인 상임고문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친노, 이해찬·문성근·신계륜  
비노, 김한길·이상호·최재성  
광주·전남 4~5명 도전 관심**

친노 진영에서는 문성근 전 대표 대행과 신계륜 당선자 등 당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권을 두고 이 전 총리에 맞설 수 있는 비노 진영의 강력한 경쟁자로는 김한길 당선자가 꼽히고 있다.

김 당선자는 '탈계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 친노 진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손학규 상임고문 등 비노 진영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내 486 그룹에서는 이상호 당선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손학규 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의원과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은 출마를 검토 중이고, 정동영 상임고문과 가까운 이종걸 의원의 이름

도 거론되고 있다.

원외에서는 천정배 전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 쪽으로는 차연 전 대변인이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6·9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진출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이다.

지도부 진출 여부를 떠나 과감한 도전에 나서 지역 정치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3선의 김동철 의원이 지도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경선에 나서기 위해 정치권 선후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며 "조만간 출마 여부

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으로 정책위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도 지도부 경선 출마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와서 지켜보니 도전 자체가 정치적 자산"이라며 "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절친한 사이인 김한길 당선자가 당권 도전에 나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조만간 김한길 당선자와 만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출마 여부를 결정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유일한 486 그룹인 김승남 당선자도 지도부 경선에 나서려는 권유를 받고 있어 고민이 깊다. 김 당선자는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받고 있지만 역량이 될지 고민"이라며 "모든 것을 비워놓고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7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 공추위, 강기정 의원 참배 또 저지 움직임 5·18기념식 '갈등의 장' 변질 우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과 '5·18 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5·18 공추위) 간 갈등으로 5·18 민중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자칫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강 의원은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3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5·18 공법단체 설립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5·18 공추위가 강 의원의 참배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7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5·18 32주년 기념식 참석과 관련, "자한테" 사과만 하면 금방 풀릴 문제다. 내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며 "그간 5·18 기념식 때마다 참석해 왔는데, (5·18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저지한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하면 되겠느냐"라고 밝혔다.

반면, 5·18 공추위는 대다수 5·18 유공자의 바람인 공법단체 설립 법안 제정을 외면한 강 의원의 참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간 입장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5·18 공추위 내부에서 강 의원의 참배 저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지난달 12일엔 5·18 공추위가 광주지역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반대하며 강 의원의 목살을 잡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5월 관련단체 한 관계자는 "5월 영령들의 넋이 고이 잠든 5·18 기념식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선 절대 안 된다. 이는 곧 광주·전남 시민들을 옥죄는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을 떠나 서로 화해하고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 3개 단체는 지난해 3월 5·18 공추위를 만든 뒤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5월 관련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단체 간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며 공법단체 설립 추진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5·18 공추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문재인 13일 '무등산 노무현길' 산행 광주 노무현재단 주최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이하 재단)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3주기(5월23일)를 앞두고 오는 13일 '무등산 노무현길' 전국 산행대회를 연다.

무등산 중심사자구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문

재인 19대 총선 당선자를 비롯한 시민·재단 관계자·민주진영 대표 등 300~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길놀이, 미공개 사진전 등의 식전 행사에 이어 문빈정사를 출발해 단상나무~중머리재~장불재를 잇는 3.5km 구간에서 산행을 펼치게 된다. 장

불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산상 음악회와 추모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무등산 노무현길은 지난 2007년 5월19일 노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날 광주시민과 함께 올랐던 무등산 등산로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5월 이 코스를 '노무현길'로 이름짓고 그가 품었던 '사람 사는 세상'의 참뜻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누리 전대주자 9인 첫 TV합동토론회

## “계파정산·정권교체 책임자” 목청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심재철·유기준·이해훈 의원, 정우택·홍문종·김태홍 당선자, 김경안 전북의산당협위원장 등 7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첫 후보자 합동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의 화합을 위해 친이, 친박 구분 없이 계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훈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는데 그간 소외된 분이나 소외된 영역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화두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훈 후보도 "당내 화합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몸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당직개편서 무엇보다 당평인사를 하는 것이

결정적인 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후보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당 대표가 직접 지구당을 방문해 대화하겠다"고 밝혔고, 심재철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줄이고 선거구 개리멘더링의 잘못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후보는 "국민만 바라보고 뛰는 후보, 그런 사람으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기준 후보는 "계파정치는 안 된다. 지금 친박이 많다고 독식체제로 가면 안 되고 당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후보는 "정치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가 민생보다 정당, 계파 간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

으며, 김경안 후보는 "당내 계파 활동이 국민의 눈에 거슬린 지키기, 이익 나눠먹기로 비쳐므로 계파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전남대학교 공직자 컨벤션홀에서 "2012 대선 승리와 새로운 체제 수립을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강연을 통해 "현 단계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 2기'의 출현을 막고 2013년 체제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2013년 체제"는 확고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민생과 평화의 과제를 향해 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강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이해찬 광주 방문

## 10일 전남대 강연

오는 6월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설 이해찬 상임고문이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전남대학교 공직자 컨벤션홀에서 "2012 대선 승리와 새로운 체제 수립을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강연을 통해 "현 단계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 2기'의 출현을 막고 2013년 체제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2013년 체제"는 확고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민생과 평화의 과제를 향해 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강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성 (중학생 이상)	인 (초등학교생)	취학어린이 (5세~7세)	이용시간	성 (중학생 이상)	인 (초등학교생)	취학어린이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목포 274-5987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